

양면적인 근대 경험: 식민지 시기 근대화와 여성의 지위

A Double Edged Sword: Modernization and Women's Status in the Family at the Beginning of the Colonization in Korea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플러스 사업단

전 희 진

1. 들어가며

근대가 여성에게 실제로 해방을 가져다 주었는가? 그 해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식민지와 같이 시작된 근대적 국가의 가족 제도 속에서 개인의 출생, 혼인, 출산, 양육, 이혼, 사망 등의 삶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법률과 사회적 조건들이 인간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국가의 제도 속에 순조롭게 포섭되어서 근대적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인가? 아니면 전근대적 삶과는 다른 그러나 여전히 성차별적인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새롭게 조명된 여성군을 통해 식민지 시기의 여성의 삶에 주목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제이부인”이라고 칭해지는 과거에는 첩이라고 불린 존재이나, 식민지 조선의 맥락에서 쉽게 첩으로 불릴 수 없는 교육받은 신여성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 불변의 지위가 인정받고 있었으나, 근대적 가족법과 같은 법률제도의 도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한 “정실부인”의 위치이다.

근대로의 진입이 일정정도 담보하고 있었던 근대적 여성의 탄생은 그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실제로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다른 스토리를 보이게 되는데, 특히 이 교육받은 신여성이 경험했던 제이부인의 지위, 혹은 제이부인이라고 명명되지는 않았거나 혹은 제이부인이라는 지위도 획득할 수 없었던 많은 신여성을 만들어 냈다. 이상적인 연애를 통해 결혼을 꿈꾸던 많은 여성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시골에 본처를 둔 남성들의 존재는 새로이 등장한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근대화된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새로운 여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을 마치기까지는 혼인이 불가능했지만, 대부분의 남성 지식인들은 여성과는 달리 조혼을 통해 교육을 받지 못한 고향의 부인을 두고 있었고, 이들은 여전히 근대 여성과의 연애, 결혼을 꿈꾸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이부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남성 지식인들이 얻고자 했던 혹은 피하고자 했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여성 지식인들은 이런 ‘제이부인’이라는 호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제이부인은 첩의 새로운 명칭인지, 혹은 진정한 삶의 동반자, 혹은 신여성과의 연애를 꿈꾸던 남성들의 호명인지에 대해 당시의 신문, 잡지, 소설 등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려고 한다.

반면, 지방에 있었던 부인의 경우는 과거에는 본처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보장되었던 지위가 불안해지고, 새로운 법률적 가족 제도 속에서 본부인은 이혼이라는 방식을 통해 박탈될 수 있는 불안한 지위로 변경된다. 결혼을 둘러싼 여성들의 지위는 교육의 여부나 계급적 지위를 넘어서 법적 지위라는 다중적인 조건 속에서 재구성을 되고, 국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들의 삶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삶이 근대라는 변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즉 근대적 해방이 단순히 개개인에 대해서 일괄적인 해방 혹은 기회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역사적, 제도적 맥락과 당시의 담론들의 교차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대해 바라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 가족 경험을 부르디외의 필드 개념을 통해 실제로 구성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자연적으로 이러한 개념과 사회적 실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이 제도, 법률, 사회규범, 담론의 소통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논의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파악하고, 살펴보려고 한다. 부르디외는 국가의 상징권력의 획득을 통한 국가가 국가로의 모습을 획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근대적 가족구조의 등장이라는 일견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이 실제로는 어떤 국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지가 이 논의의 대상이다. 즉 근대로의 이행에 따라서 가족구조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성원들이 갈등하면서 실제 어떤 가족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기존의 전통 중에서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수용의 결과가 어떻게 사회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근대국가의 자연적 결과로서의 근대가족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경쟁하는 담론과 실천을 통한 개념의 수용과 적용을 보려는 것이다.

부르디외의 중요 개념인 상징권력의 투쟁과 축적의 과정은 실제 그 지식의 정당성에 근거하고 있다가보다는 사회 안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갈등을 통한 역동적인 변화에 근거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지식은 정통으로 변모하고, 혹은 이단으로 취급되게 된다(부르디외 1977). 이러한 부르디외의 과정적 측면에 대한 관점을 수용하여, 식민지 시기 여성들의 지위 변화에 있어서도, 특히 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논의가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각 지식인들이 혹은 그 지식인들의 군상이 의도했던 여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동시에 이 속에서 여성들의 전략과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 논의를 전개하고 위해서 이 글은 당시의 『신여성』이라는 잡지의 특집기사와 이광수의 『재생』, 그리고 이선희의 『도장』이라는 소설과 그의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당시의 논의를 살펴보고, 근대적 가족이라는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지식의 생산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과 소외 경험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한다.

특히 기존의 논의에서는 성장치를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써, 알튀세르의 국가 개념에 기대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고정갑희 2004: 17),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개념은 맑스주의적 시각으로 국가를 분석하는 형태로 실제 이데올로기적 국가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급적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계급적 논의를 위한 보조적 장치로써 국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실제 담론의 구성이 가지는 힘을 부차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논문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알튀세르가 가정하고 있는 계급적인 주체가 아닌 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성적 주체, 성적 차별을 위한 국가 장치로 파악하게 되면, 여성에 대한 국가의 논의가 국가의 전략에 따라서 여성의 삶이 재구성되는 일방적인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여성의 삶에 대한 국가, 법률의 간섭은 단순히 법의 존재만이 아닌 실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통해 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 즉, 법적인 제도의 설립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왜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제도적인, 법률적인 변화가 단순히 그 변화를 넘어서 그 법률적 변화가 가져오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변화가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 왜 특정 성(gender)이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그 논의를 통해 특정한 성을 가진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여성들이 근대에서 경험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근대의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 따라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에 대해 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종류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길고 긴 투쟁이었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경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핵가족제도가 단순히 서구에서 들어와서 정착된 무엇이라기보다는 그런 모델이 들어와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로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파악되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다.

2. 정실부인의 위상 약화: 도장

조선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정실부인의 권위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물론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있어서도 후기로 갈수록 여인들의 삶이 주자학적 질서의 확대에 따라 차등화되었다고 바라보거나 혹은 여성의 안정적인 삶이 가능했다는 주장 모두 여성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큰 카테고리 파악하고 있어 실제로 다양하게 존재했던 과부, 재혼녀, 첩, 독신 여성과 같이 주자학적 질서 속에서의 호명된 여성의 삶과는 다른 삶을 영위하는 여성의 삶의 면면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삶의 궤적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는 국가와 사회의 비난을 면할 수 없었고, 따라서 결혼의 장려 속에서 미혼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과부의 경우는 다시 결혼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된다. 즉, 국가는 여성에게 있어서 단 한번만의 결혼을 권하게 되고, 그 결혼제도에서 벗어나게된 과부는 결혼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죽은 전남편의 집안을 부양하면서 가부장이 영역을 넘보아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수절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정지영 2004). 첩의 경우도 가족안의 위계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존재로, 이러한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들은 철저히 정실부인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존재로 호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실부인을 중심으로 하는 위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식민지 시기의 여류작가인 이선희는 소녀, 여학생, 신여성, 구여성, 기생, 아내, 첩, 계집, 마담, 여점원 등과 같이 다양한 여성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활동을 했는데(오태호 2009:381), 특히 「도장」(이선희 1937)은 만동서로 불리는 여주인공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남편의 폭력, 이후에는 자신이 감옥에 갈 수 있으니 본실로써 가족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설득에 넘어가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이야기이다. 이 글에서 주인공은 만동서는 “터놓고 말이지 저 집 만동서는 이름이 좋아서 만동서지 실상인 즉 개밥에 도토리 굴 듯 이 구석 저 구석으로 굴러다니는 판 박은 소박데기다 (이선희 2009(1937): 37).”로 묘사되면서 외모도 변변치 않다고 마치 “광고판 같은 얼굴판이 붉기는 왜 그리 붉으며 사철 두 입귀가 침에 허영게 붙어 있으니 그 주먹 같은 들창코하고 어느 모로 보든지 볼품은 없이 생겨 먹었다 (이선희 2009(1937): 37)”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못생긴 부인이 “나잇살이나 지극한 흠아비나 어쨌든 계급 궁한 사내한테라두 시집을 갔을 말이면” 나를 잘 살았을텐데, “워낙 짝이 찌브는 남정네를 만나서 말도 많고 닳도 많고 한평생 고생살이가 치마끈에 매달리는 꼴이 하도 딱하다 (이선희 2009(1937): 37-8)” 라는 묘사는 실제 잘난 남편과 혼인을 한 만동서에 대한 남편의 불만이나 이혼에 대한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7-8년간 찾아오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만동서는 남편이 “재작년에 와서 ‘도장’을 내어놓으라고 몸부림, 칼부림을 해서 만동서가 한바탕 죽었다 살아났지던 경험이 떠올라 두려웠으나, 이번에는 암

만 보아도 또 ‘도장’ 때문에 온 눈치는 아니 (이선희 2009(1937): 39)”여서 내심 맘이 놓이고, 흑여 나이가 들어가니 본부인 좋은줄 깨달았나 싶어 마음이 기뻐진다. 기쁜 마음에 환갑 잔칫상에 놓을 음식에 대한 상상도 해보고¹, 맘씨 좋게 민적에 따르면 작은 여편네의 아이들도 다 내 아이들이라면서 작은 부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표현해 보는 것이다².

그러나 이러한 부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은 도장이다. 도장을 찍으면 이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은 스스로 상상하며 작은 부인을 동정하고, 아이들에 대해 자애로운 맘을 가지게 했던 자신의 민적 상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남편의 매질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손가락만한 나무에 글자를 새기고 그 끝엔 빨간 인습이 묻어 있는 이 물건이 그렇게 몹시 무서운” 도장을 찍어주는 순간, 실제로는 죽음과도 같은 본처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이선희 2009(1937): 44). 그러나 2년전 강압적인 전략이 먹히지 않은 경험을 통해, 남편은 “여보, 내 임자에게 하나 물어볼 것이 있소. 내가 만일 ‘가막소’에 들어가서 징역을 사게 되면 임자는 어쩔 테요?” (이선희 2009(1937): 46)라고 질문하게 되고, 이에 넘어가서 부인은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주게 된다. “남정네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이 남편네와 남이 되게 하는 노릇이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도장을 내어놓고 말았다.” (이선희 2009(1937): 48) 부인은 마지막까지 “도장을 찍어도 나는 늘 이집에 있지요?”라고 안타까운 물음을 던지면서 이 소설은 마친다.

도장을 남편에게 건내주면서 잃어가는 본부인의 법적 지위 박탈, 그러나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수 없는 부인의 마음이 동시에 드러난다. 즉 국가의 법률적 보호 속에서 누구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때의 도장을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여성의 모습은 당시의 지식인인 이선희의 눈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스피박(2013)이 이야기하는 마진에 존재하는 문학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서구의 논의의 다른 일면이라는 지적과 같이 이선희의 시각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교육받지 못한 여성의 삶을 드러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객관적인 매력없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닥친 일들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선희(2009(1937-8))의 시각은 다른 소설 「여인명령」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사실 이 안에 여점원과 남점원은 다 같은 이십 원 내외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 값에 있어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인다.

대개 여점원의 첫째 조건은 얼굴에 있으므로 여기 채용된 여점원은 거의 다 자기 얼굴에 대하여 많은 자부심과 교만을 가졌다. 그런 까닭에 이 얼굴을 밑천으로 해서 그들은 이 백화점에 드나드는 가장 호화로운 부인들과 같은 데 시집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¹ 남편과 의논할 거리는 생각해보다가 “이 담에 내 환갑이 되거든 애들을 내 앞에 불러내어 잔을 부으라 하고..... 그러구 환갑상에는 작은여편네 환갑상보다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더 해놓아달라고 해야지. 아무렴 큰여편네하고 작은여편네하고 어디 같은가 (이선희 2009(1937): 40)”라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기도 한다.

² “작은 여편네가 또 아들을 낳아도 그건 내아들이지요. 계집애들도 그렇지. 죄다 내 딸이야유. 나는 큰마누라니까 민적에 있거든요. 민적에 오른 내 이름이 김정순이라나요. 민적이 제일이죠. 그러기에 큰마누라가 좋다는게 아니우? 그 애들도 죄다 내 앞으로 올라서 내 아이들이야유. 저 어미야 암만 낳으면 쓸데 있나요. 나만 땡을 잡았지. 그 여편네도 생각하면 불쌍하죠. 백년 있으면 언제 민적에 올라보나요” (이선희 2009(1937): 42)

또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 시집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영애도 순이도 죄다 그런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시집 간 몇 달 동안 이 백화점을 다시 찾을 때는 가느다란 금시곶줄을 저고리 밑에 늘이고 값비싼 여우목도리 속에서 뽀-얀 얼굴을 살짝 웃어만 보이는 것이다.

수많은 여점원 가운데서 영애나 순이처럼 되는 사람은 좀체 쉬운 일이 아니나 이 안에 여점원들은 누구나 그러한 시집들을 꿈꾼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남자점원들이야 그 쓰메에리 검은 복장이 그리 좋을 것도 없고 월급 이십 원에서 이십오 원으로 올라가자면 아차 까맣게 쳐다보이는 몇 해의 세월을 흘러야 하니 생각하면 을씨년스럽고 궁하고……(이선희 151)

남자 직원들과는 다른 백화점 여직원들은 시집을 통해서 부잣집에 갈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동시에 이 글에 등장하는 주인공 안나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데 있어서 연애 경험이 그 중심을 이루고, 이러한 연애를 통해 “가만히 따져보면 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이루 해일 수 없이 많은데 이것을 편의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반렬을 세우듯이 두 줄로 ‘나란히’를 시키면 넉넉히 일 소대는 이를 것이겠다. 그러나 안나에겐 사실 한 사람의 남편도 없고 그 많은 남편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다 다른 여인의 남편이다.”(이선희 2009(1937-8): 179)인 것이다. 백화점 여직원이나 혹은 술집 마담의 연애를 통한 신분상승의 욕구, 그리고 그 가능성의 기반에는 미모라고 명명되는 구식여성과는 다른 근대 문명과의 근접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선희의 글은 당시의 여성 작가들이 직면했던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성 작가들은 여성 심리 묘사에 탁월하므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되었고 이는 식민지 시기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거리두기를 통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일정정도 남성 지식인들이 보이는 구식여성과 신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반기를 들거나 혹은 새로운 여성상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는 전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제이부인: 이광수의 『재생』

1933년 잡지 『신여성』에는 「第二夫人問題檢討」라는 기사를 통해 젊은 남녀가 만나서 교류가 생기고 연애를 하게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나, 실제 그 남자가 남편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집안에서 맏어준 부인이 있는 경우에 현재의 연인 관계에 놓인, 그리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부인을 ‘제이부인’이라고 칭하고, 이 잡지에서는 이 논의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신여성의 대부분이 결혼할 수 있는 남자는 이미 혼인관계에 있는 남자들인데, 이들이 본부인과는 실제 혼인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춘의 요구를 단순히 성욕만이 아닌 교류에의 욕망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들이 여성들을 만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전희복 1933: 4)”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새롭게 사권 여성을 새로 민적에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서술하고 있다. 남녀가 연애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남자가 기혼자여부를 확인하거나 혹은 연애관계가 진척되었다고 기혼여부를 알게되면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성이 ‘제이부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제이부인 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것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당시의 시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논의가 전면에서 부각되는 것이다.

제이부인에 관한 논의는 조혼의 폐단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법률의 등장으로 1894년 이후에는 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1894년 반포된 갑오개혁 폐정개혁안을 통해 20세 이하 남자, 16세 이하 여자의 혼인이 금지되었고 1907년 조칙 제 20호로 반포된 조혼 금지에 관한 건에서는 일본 민법을 따라서 기준 연령이 남자 17세 미만, 여자 15세 미만으로 낮춰졌다. 이 규정은 조선민사령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서 17세 이하의 남자, 15세 이하의 여자의 혼인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민적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되었다(전봉관 2014: 27). 제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혼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조혼의 금지와 민적을 통한 혼인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혼인의 해소는 이혼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고, 이혼하는 경우 아내는 위자료와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조혼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적인 보장도 없고, 실재 그 결혼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여기서 흥미진진한 것은 조혼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문제는 남편의 경우가 아니라 조혼한 남자와 결혼하려는 여성과 그와 이미 결혼하고 있었던 여성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조혼을 한 여성의 경우 이미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교육의 기회와 거의 연결되지 않는 까닭에 교육받지 못한 구식 여성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에 비해서 교육받은 여성의 경우는 사실상 미혼의 경우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다 마쳤을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또한 조혼으로 인해 양친 사이가 불협하여 고민하던 당시 자녀들이 보낸 고민의 편지에 대한 편집인의 대답은 “조혼에서 오는 폐해의 해독이 그 자손에게까지 이다지 깊이 파고들어 간다는 것은 여간 비참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오로지 아저비를 부정타고 원망하겠지만 그건 아버지 본인의 죄도 아닙니다. 과거 조선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대로 조혼을 시켰던 사회제도에 그 잘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명암의 십자로 1935. 3. 29, 전봉관 2014 36-7 쪽에서 재인용).” 이 논평에서 실제로 아버지의 문제가 아닌 조혼의 사회제도라고 서술함으로써 개인적 선택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혼을 통해 만난 전처를 버리고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이다지도 관대했던 관점과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어떤 다양한 논의가 나타나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독자투고를 보낸 사람의 면면인데, 많은 경우 이혼을 요구당하는 부인이 대다수였고, 구식여성의 자식의 경우 혹은 시부모로부터의 편지를 볼 수 있다.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당사자는 사실상 대답해주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물으니, 잘못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습, 조혼을 시킨 부모에게 있고, 실제 남편의 그런 대우는 이해할만하다는 것이다. 당시의 여성운동가 이숙종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들의 이혼을 허락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구여성 은 아내의 덕과 지조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한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교육 수준의 문제로 지금 이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전봉관 2014: 62).

전통사회에서의 본처의 위치는 넘볼 수 없는 것임과 동시에 실제로 첩은 신분격차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가 죽더라도 첩이 본처가 되는 경우는 한정적이었던(전봉관 2014: 59) 것에 비해, 식민지 시기의 새로이 등장한 첩의 경우에는 그 맥락이 달랐는데, 본처에 비하여 교육수준, 지식, 능력 면에서 우월한 여성이 나타난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첩은 처의 지위를 넘볼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새롭게

등장한 제이부인 집단은, 근대 이후 민법에 따라 일부일처제를 통해 이혼과 호적 등재의 과정으로 법적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처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남편이 본처와 이혼할 수 있다면 제이부인도 어엿한 본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전봉관 2014: 61).

그러나 이러한 조혼의 문제와 새로운 법률제도의 도입이 만들어낸 근대적 가족 구성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폐단으로의 제이부인의 문제 등은 가족 구성원 중에 여성에 대한 논의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좀더 고찰이 요구된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남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여성의 선택 가능성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여성의 선택의 문제로 구성되게 되는가? 남성은 어떤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는가? 왜 그들은 면죄부를 받는가? 구래의 전통에 의한 희생양이라고 서술한다면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근대가 되면서 개인들이 개인의 선택을 가진다면 어떤 순간에 그들은 주체성을 획득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왜 여성들은 딜레마를 맞이하는 존재인데, 남성은 그 희생양이 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이부인에 대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실제 왜 이광수가 주장하는 “첫사랑을 남편에게”라는 요구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이광수 1962[1931]). 일부일처제의 문제는 양자의 문제인데, 논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부인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는 실제 사회적, 제도적 변화에 있어서 담론이 구성되고,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젠더가 구성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 생물학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문화적 구성을 통해서 그 차이를 공고화하고, 재규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Calhoun 1995: 76).

조선의 많은 젊은 남성들은 “... 리혼을 바라면서 하지 못하고 증역생활갓치 차고 쓰라린 생활에 괴로워하는 것도 자귀가 선택하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거하기 시작한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랴 (편집인 1924: 3)”라고 서술하고 있는하면서 이 잡지의 편집인은 미혼의 남녀가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처를 둔 남성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고, 그들을 미혼의 남녀로 규정함으로써, 조혼을 통한 혼인에 대해 남성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듯하다. 또한 글에서는 자식의 배우자를 찾아주고픈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 결혼할 당사자인 본인이 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당사자의 문제로 분석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결합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결합에 기반을 한 근대적 제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들 딸의 장래 행복을 바라는 이어던 맛당히 그 배우의 선택을 당자에게 맡길 것이외다 (편집인 1924: 4)”라고 서술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배우자를 정하는 것에 대한 당연히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가 명해주는 것은 신타고....저의끼리 조와서 사는 것은 펍도 의쫘게 잘들살드라 (편집인 1924: 4)”라는 요즘의 유행하는 말은 실제 결혼의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결혼을 결정해야 하는 당위는 존재하지만, 그 당위에 따르는 능력이 부족함에 대해서 비난하여 그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적 남녀 관계에 대한 상상은 만남에서만 아니라 결혼 생활 내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관계를 주장하게 된다. 일년에 한달 정도의 부부별거설을 통해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자는 등의 급진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주요한(1924: 25)은 안해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집에서 집안일을 잘 다스려나아가는 것은 그것으로 사회생활만큼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흔히 바라는 “부자집에 시집가서 안밖그로 하인두고 유모두고 식모두고 침모두고서 나는 손가락하나 꿈작아니하고 남편이 버려오는 돈으로 잘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러한 태도는 “그 남편에게 다만 생식기를 팔고 어더먹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음녀나 창기에

비유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부자와의 결혼을 바라는 풍조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를 보이는데, 염상섭 역시 소설 『남충서』의 부유한 조선인 아버지에는 그 돈을 따르는, 내지인첩, 기생첩, 여학생첩 등의 다양한 첩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여성이 자본이 있는 남성에게 일본인인 경우 혹은 신여성이 경우에도 쉽게 첩이 되는 경향, 즉 여성들의 경제적 종속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다른 예로는 청운거사(1924)의 춘소한화(春宵閑話)에서 나타나듯이, “남자는 전문학교 대학을 졸업하고나서도 직업구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힘이 드는데 그와 반대로 여자는 얼굴 한가지만 잘났으면 여기서 저귀서 일등가는 신랑들이 손을 들고 덤벼든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여성들이 허영심이 높아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다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글은 독자를 여성으로 상정하고 여성이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자들은 정신적은 향락을 얻으려는데 비해, 여성들은 “대개 열의 아홉은 물질적 향락을 얻으려고만 쏠니는 모양이다 (청운거사. 1924: 47)”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 남성들은 이 때의 여자들은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거나 존경할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자를 물질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없으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곳에서 남성의 욕망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들은 여성의 미모만을 쫓아서 여성을 허영에 빠지게 만드는 동시에, 정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고고한 인물로 나타나는 모순적인 존재인 것인가?

그러나 남녀의 결혼에 있어 남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 대해 “종년의 마음(기전 1924: 10)”이라고 표현의 근본에는 남성과 여성이 독립된 인격과 더불어 경제적인 독립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논의의 이면에는 실제 식민지 조선 안에 가능한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데 그 문제의 지점이 있다. 근대적인 다른 삶의 양식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시점에 왜 이들은 허울좋은 주장만을 가지고 남녀의 평등을 접근하는 것인가? 또한 남성의 구습에 따른 결혼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한데 비해서 왜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게 되는 것인가? 남성은 과거와 연결되어서 구속되는 미흡한 존재이지만, 여성은 그 사회적인 구속과 한계를 극복한 전지적인 인물로 나타나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의 구현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찻떼르지(Chatterjee 1993)가 말하는 여성을 통해서 근대적인 민족을 상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성의 욕망의 선택과 그 파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글은 이광수(2013(1925))의 『재생』에서 찾을 수 있다. 1925년 발표된 이광수의 『재생』은 작가의 변에서 자신의 창작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광수의 다른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재생』이라는 작품 역시 1924년의 삼일 운동이 끝난 직후의 조선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강현구. 2011: 411-2). 3.1 운동 직후 조선은 ‘연애에 살고 연애에 죽기를’ 열망하는 연애의 시대가 펼쳐졌다 (고미숙 2014: 96).

“지금 내 눈앞에는 별거벗은 조선의 강산이 보이고, 그 속에서 울고 웃는 조선 사람들이 보이고, 그중에 조선의 운명을 맡았다는 젊은 남녀가 보인다. 그들은 혹은 사랑의 혹은 황금의, 혹은 명예의, 혹은 이상의 불길속에서 웃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죽고 한다. 이러한 속에서 새 조선의 새 생명이 아프게, 쓰리게, 그러나 쉬임없이 돌아 오른다 - 이런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인다 (이광수 1924, 정혜영 2001: 216-7에서 재인용)”

재생이라는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사랑의 과정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민족에 대한 헌신을 그리고 있다. 이광수의 관점에서 민족에 대한 열정이, 연애로 대체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민족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소설의 전개 과정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인공인 신봉구와 김순영은 삼일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서 동지애적인 애뜻함을 느끼다가, 신봉구가 투옥되면서 헤어지게 된다. 그 경험을 곧 잊어버린 김순영과는 달리 신봉구는 순영이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삼일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주인공 봉구는 스스로가 조선을 사랑하는 이유를 “나는 조선을 사랑한다. -순영이를 낳아서 길러 준 조선이니 사랑한다. 만일 순영이가 없다고 하면 내가 무슨 까닭에 조선을 사랑할까? 순영이를 알기 전에도 나는 조선을 사랑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왜 조선을 사랑하였는지 모른다. 순영이를 떼 놓면 조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광수 2013: 30). 주인공 봉구는 당시를 지배하던 민족에 대한 애정의 근거로 순영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파악할 정도로 순수하게 순영을 사랑한다. 그러나 순영의 오라버니는 자신에게 사업 자금을 대 줄 수 있는 백씨와의 연결을 강권한다. 백씨도 앞에서는 순영을 감히 첩으로 들이지 않을 것을 장담한다.

“어디 첩이라니 내가 매씨를 첩으로 달라고 할 리가 있나요. 노형은 내집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지마는 내 아내라는 자가 벌써 병으로 누워 있는 지가 삼년 째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도 금년을 넘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만일 내가 하려고만 하면 만일 노형 매씨와 혼인만 하게 된다면 금시라도 이혼 수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지 어디 노형 매씨로 첩이란 말이 당한 말씀인가요.... 부청 민적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 사람이나 다름없고 또 부윤으로 말하더라도 내 말이라면 거스릴 리가 없으니까 만일 이혼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금시라도 될 일이지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것처럼 노형께서 노여실 것은 아니지요.” (이광수 2013: 46-7)

그러나 실제로 백씨는 본처를 버릴 의지는 없었고, 순영을 돈으로 유혹하는데 성공한다. 이미 백씨와 살림을 합친 순영에게 봉구가 나타나서 그의 순정을 바치고, 백씨는 자신에게 금강석 반지를 흔드는 과정에서 순영은 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순영은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먹고 살아요?“하려다가 말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러한 생각이 나는 것이 부끄러운 듯하였다. 순영의 마음에는 난데없는 봉구가 뛰어들어와 평화를 어지럽게 하였다. 동대문 밖 고래당 같은 큰 집에 여송연을 피우던 백과, 때묻은 학생복을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갈라 넘긴 봉구와 두 사람이 순영의 분홍꽃 핀 마음 동산을 제것으로 만들려고 싸운다. 백은, ”옛다-금강석 반지를 받아라-자동차를 받아라. 음란한 육욕의 만족을 받아라!“하고 거만하게 젊잖게 자기를 부르고, 그와 반대로 봉구는, ”내 몸을 받으소서, 내 맘을 받으소서.“하고 자기의 발밑에 꿇어 앉았다 (이광수 2013: 68-9)”

그러나 순영은 자신과 부호 백윤희를 저울질하다가 부를 선택하여 그의 첩이되고, 신봉구는 모든

이상을 접고 돈을 벌기 위해 인천 미두장으로 흘러들어가 거부가 되기를 꿈꾼다. 그러나 누명으로 봉구는 감옥에 가게되고, 순영은 마침내 봉구를 위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백씨와 헤어져 산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면서 소설이 마쳐진다.

이 소설에 나타나는 남자 등장인물들은 모두 여학생과의 연애를 꿈꾼다. 미국 유학파 출신의 김박사는 여학생과의 결혼을 위해 조강지처를 버리고 여학생의 뒤를 따라다니고, 윤변호사도 여학생과 결혼을 하고 부호 백윤희는 끊임없이 여학생첩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일처제라는 새로운 법률적 제도는 여학생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할 수 있다는 번드르한 말로 치장하지만 사실은 그 법률적 처리는 귀찮은 과정이었고,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연히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이 글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부유한 남성들의 첩이 되기를 바란다.

중략.... 윤변호사 집 안방에는 많은 여자들이 모였다. 마루 앞에 어지러이 벗어들 놓은 구두로 보아 그 여자들이 신식 교육을 받은 자들인 것과 또 그 구두의 대개는 흙도 안 묻은 것으로 보아서 적더라도 그들이 출입할 때에는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을 추측할 것이다. 순영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방 안에서 웃고 지껄이던 소리가 그치며 선주를 선두로 옥 칠인의 여자가 우르르 일어나 나와 순영을 맞는다. 선주는 어쩔 줄 모르게 반가운 빛을 보이며 웃고 떠드노라고 흥분된 얼굴에 웃음을 띠우고 순영의 외투를 받다 들고 한손을 붙들여 올리며.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정성이 미쳐서 기어이 오고야 만단 말이야. 어디 갔었어? 전화 줄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었다누. 오래간만에 모여서 하루 놀자고, 자 들어가!”

하고 순영의 허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른 여자들도 모두 순영에게 인사말을 하고 방에 들어 왔다. 방바닥에는 화투 트럼푸장이 너저분하고 한편 구석 둥근 키 작은 탁자 위에는 납지에 짠 값이 싸고 비맛 날 듯한 과자와 열 개 한 갑에 사십여 전이나 하는 향기로운 청지연과 서양서 온 포도주와 브랜디 병과 오색이 찬란한 유리 접시에는 황금 같은 테이블 호박빛나는 능금이 담겨 놓였다.

조그마한 유리잔들에 핏빛 같은 술이 조금씩 담김 것을 보면 이 색시들이 얼굴이 붉은 것이 반드시 웃고 떠들기에 흥분된 때문만 아닌 듯하였다. 선주는 순영에게 께련을 권하고 또 한여자는 브랜디 한잔을 남실남실하게 따라 순영의 앞에 놓으며,

“추운데 한잔 잡수우.”

하고 권한다. 여러 여자들은 모두 아름답고 돈 많은 순영을 부러워하는 듯 환대하였다. 기쁨이 넘치는 그들은 순영의 속에 죽기보다 더한 괴로움과 무엇이 될지 모르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었다. 순영이가 께련 한 개를 피우자 다른 여자들도 모두 한 개씩 피워 물었다. 또 순영에게 브랜디 한 잔을 권하는 길에 모두 자기들도 혹은 브랜디를 혹은 핏빛 같은 포도주를 한 잔씩 따르어 한 모금씩 마시고는 앞에 놓았다.

중략

그 나머지 여자들 중에 더러는 순영이나 선주 마찬가지로 대개는 돈 있는 사람의 첩이거나 또는 분명치 못한 혼인을 한 사람들이요. 더러는 아직 혼인을 아니 하고 또 공부도 아니하고 말하자면 넘고치지어서 시집도 못가고 영어나 음악이나 배운다는 사람들이요. 더

러는 여학교의 교사요. 더러는 예배당의 찬양대에 자서는 사람들이다. 나이는 모두 이십 삼사세사 되었으나 아직 일정한 직업 아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 없는 좋게 말하자면 여자 중의 귀족이요 좋지 못하면 말하자면 여자 부랑자들이다. 그 중에서 순영이나 선주와 같이 부잣집의 첩으로 간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부러워함을 받는다 (이광수 2013: 442-444, 강조는 인용자).

그러나 이러한 부러워함을 받는 여성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통해 이광수는 『무정』에서 보여주었던 여주인공 영채의 자살결심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 가질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글에서는 재생의 기회는 부여되지 않는다. 순영은 나름 재생을 위해 직장도 구해보고, 자립을 위해 노력도 해보았지만 방탕한 생활이 만든 신체의 질병과 상심으로 마침내 죽게되는 것이다. 지고지순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봉구는 그녀를 무덤에 묻어준다. 순영의 죽음을 작가나 봉구에 의한 단죄를 파악하거나 (서영채 2004, 김병구 2013) 혹은 “민족주의에 위배되는 비정상성, 비도덕성은 추방될 수 없다”는 작가의 의지의 표출로 분석하거나 (김경미 2012: 12), 인류애를 구현하고자 하는 봉구가 사적인 사랑을 수용할 수 없음에 따른 결과(강한국 2013)로 분석하는 등의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지만, 그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순영의 잘못된 선택은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재생』에 묘사된 여성들을 통해 이광수는 조선의 남녀가 특히 여성이 황금과 명예에 유혹당하는 현실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재생의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문학을 통해 민족 교육을 꿈꾸었던 이광수는 여성의 허영심에 대해 경계하고, 서구적 지식의 획득이 신여성의 일차적 덕목이지만 마지막 덕목은 아니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논의와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구체적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신여성의 사치의 유혹과의 결합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의 많은 논평가들은 일반적으로 애정없는 결혼 생활은 이혼을 통해 끝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결혼 과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혼 생활을 통해 부부의 마음이 떠난 경우는 이혼이 해답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글에서 나타나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는 당시의 구습적 결혼에 대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한번 결혼하면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결혼과는 달리 이혼의 법적인 보장은 사람들사이의 관계를 애정에 바탕으로 한 무엇으로 만들었고, 그러한 애정이 존재하지 않는 결혼에서의 이혼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애정의 소멸에 따른 관계의 정리는 근대적 연애관을 투영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를 위해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없음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으나, 큰 고려대상은 아닌 듯 하다. 또한 실제로 남성 지식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습적인 결혼의 문제에서의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이혼이 전통적인 여성의 경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다³.

³ 1911 년에서 1929 년까지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5,000 여건에서 만건에 이르는 이혼이 나타나서 단순히 법률로만 존재했던 이혼이 아닌 실제로도 경험되고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이혼 통계, 1911 년-1929 년>

| 구분 년도 | 조선인 | | | 일본인 | | | 기타 외국인 | | |
|----------|-----|----|------|-----|----|------|--------|----|------|
| | 결혼 | 이혼 | 년말배우 | 결혼 | 이혼 | 년말배우 | 결혼 | 이혼 | 년말배우 |
| | | | | | | | | | |

당시 잡지 『신여성』(1924)에 실린 고백글 「두 번째나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은 자신이 어린 시절 결혼했던 부인이 결혼에 대해 재미가 없고, 정부를 만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해서 이혼을 했다는 고백이다. 자신의 경험담을 기고 형식으로 쓴 글에서는 부인이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 전혀 자신의 책임이나 문제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할 정도로 결혼 생활이 적응하지 어려운 여성의 삶에 남편으로 존재하면서도 기고자는 전혀 자신의 문제가 아닌 무서운 여성을 만나서 당한 끔찍한 경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이러한 경험이 현재도 결혼을 못하는 까닭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실제 여성과는 달리 남성이 이혼에 대해서 느끼는 무게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성이 경험하는 이중적인 불안감, 전통적으로 보장되던 지위는 새로운 근대적 제도의 도입으로 약화되고, 그럼에도 새로운 연애를 통한 결혼에 있어서도 그 순수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실제 욕망의 표출이라고 서술되면서 규제되는 속에서 신여성은 신여성대로, 구식여성은 그 나름으로 새로운 제도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 경험의 구성원으로 남성이 참여하는 것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분석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오히려 도덕적인 잣대는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관계는 만들어짐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 남성은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 | | | | | | | | | |
|------|---------|--------|-----------|-------|-----|---------|----|---|-------|
| 1911 | 85,612 | 5,621 | ? | 780 | 131 | 42,391 | ? | ? | ? |
| 1912 | 121,993 | 9,058 | ? | 805 | 95 | 52,121 | ? | ? | ? |
| 1913 | 131,495 | 9,915 | 3,805,362 | 1,246 | 182 | 62,160 | ? | ? | ? |
| 1914 | 115,725 | 8,976 | 3,744,803 | 1,129 | 151 | 66,305 | ? | ? | ? |
| 1915 | 102,137 | 7,995 | 3,749,868 | 1,584 | 214 | 69,243 | 10 | 2 | 656 |
| 1916 | 126,918 | 9,761 | 3,810,884 | 1,876 | 276 | 74,163 | 4 | 3 | 833 |
| 1917 | 136,406 | 10,542 | 3,892,671 | 1,723 | 245 | 72,301 | 22 | 2 | 976 |
| 1918 | 143,980 | 10,498 | 3,928,090 | 2,130 | 248 | 73,253 | 4 | 0 | 1,372 |
| 1919 | 143,098 | 9,737 | 4,380,995 | 663 | 207 | 72,759 | 8 | 0 | 1,014 |
| 1920 | 141,122 | 7,982 | 4,377,264 | 643 | 71 | 72,397 | 5 | 2 | 1,260 |
| 1921 | 155,591 | 7,222 | 4,440,238 | 747 | 69 | 76,431 | 5 | 0 | 1,449 |
| 1922 | 193,918 | 7,284 | 4,477,623 | 875 | 104 | 78,791 | 0 | 0 | 1,709 |
| 1923 | 258,167 | 8,797 | 4,450,859 | 928 | 92 | 82,791 | 1 | 0 | 1,910 |
| 1924 | 154,809 | 7,041 | 4,422,534 | 1,123 | 129 | 84,469 | 3 | 3 | 1,678 |
| 1925 | 171,066 | 7,607 | 4,654,726 | 1,185 | 101 | 91,053 | 8 | 0 | 2,878 |
| 1926 | 167,409 | 6,988 | 4,662,923 | 1,184 | 115 | 95,548 | 5 | 0 | 2,849 |
| 1927 | 174,653 | 6,991 | 4,686,835 | 1,287 | 121 | 97,389 | 13 | 0 | 3,229 |
| 1928 | 191,816 | 8,218 | 4,658,030 | 1,335 | 129 | 101,129 | 14 | 4 | 3,845 |
| 1929 | 192,723 | 8,021 | 4,643,709 | 1,524 | 156 | 106,022 | 18 | 7 | 4,507 |

자료: 조선통독부조사월보, 강병식 1955: 427 에서 재인용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그것이 정실부인이든 혹은 제이부인의 형태이든간에 여성이 스스로의 순정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부자와의 결혼은 물질적 욕망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접근이다. 즉 가난한 남성의 계급적인 지위와 가족 구성에 있어서의 젠더의 역할이 교차하면서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에 대한 규제는 계급적인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근대화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가족에게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출현은 남성들이 조혼을 통해 결혼한 부인과 실제 연애감정을 통해 새로이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과의 문제에 있어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반면에 정실부인 혹은 제이부인이라는 모습을 통해 여성의 바른 선택은 무엇이고,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실제 사회에서 규율하고자 했던 여성에 대한 규제의 한 단면인 것이다. 부르디외(Bourdieu 1991: 221, Gloldberg 2013: 218-9))가 주장한, 사람들이 집단을 보거나 믿도록 만드는 힘, 그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합법적인 정의를 획득한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분류 투쟁에 있어서, 그 분류의 과정은 이미 있는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왜 이 식민지 사회가 조혼의 문제에 직면하는 남성과 여성 중에서 특히 여성의 문제에 대해 집중했으며, 또한 그 논의를 통해 어떤 지식들을 유통시키고, 문제시키고, 또한 도덕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한다. 첩이 된 신여성을 ‘배반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제이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사랑에 의해 첩이 된 경우였다(정지영 2006: 80). 그러나 실제로 그 호명에 있어서 제이부인인 가 혹은 첩인가의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가족관계의 다양한 면 중에서 그 부분을 부각하는 그 논의 자체가 새로운 가족 구성에 있어서 사회의 집단들이 어떻게 새롭게 등장하는 집단에 대해서 명명하고 또한 그를 통해 그들을 규제하려는 과정이었으며, 여성들 역시 이러한 명명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고집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가치의 추구를 통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면서 근대적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지는 것이다.

<참고문헌>

-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i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Edited by John B. Thomps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lhoun, Craig, 1995. *Critical Social Theory: Culture,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Difference*. Malden: Blackwell Publishers
- Chatterjee, Partha. 1993.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 on University Pres
- Goldberg, Chad Alan, 2013. “T. H. Marshall Meets Pierre Bourdieu: Citizens and Paupers in the Development of the U.S. Weelfare State.” edited by Philip S. Gorski. *Bourdieu and Historical Analysis*. Duke University Press
- 강병식. 1995. 「일제하 한국에서의 결혼과 이혼 및 출산 실태 연구」, 『사학지』 제28집

- 강한국. 2013. 「계몽과 사랑, 그 불편한 관계에 대하여-「개혁자」와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61집 (17권 4호)
- 강현구. 2011. 「다시 보는 ‘재생’」, 『재생』 정산미디어
- 고미숙. 2014. 『연애의 시대: 근대적 여성성과 사랑의 탄생』. 북드라망
- 고정갑희. 2004. 「성 장치와 역사읽기」, 조옥라·정지영 역, 『젠더, 경험, 역사』,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기전. 1924. 「죽은 혼인과 허튼 혼인: 위선문제만 끄집어 내리라」, 『신여성』 제 2 권, 제 5호. 1924년 5월
- 김경미. 2012.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 『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0권
- 김병구. 2013. 「이광수 장편소설 「재생」의 정치시학적 특성 연구」, 『국어문학』 54권
- 서영채. 2004. 『사랑의 문법』. 민음사
- 스피박,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2013.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 오태호. 2009. 「여성적 욕망과 남성적 현실 사이의 거리: 1930년대 신여성의 낭만적 감수성」, 『이선희 소설 전집』 현대문학
- 이광수. 1962[1931]. "여성의 십계명." 『이광수 전집』. 서울: 삼중당.
- 이광수. 2013. 『재생』. Renovation
- 이선희. 2009(1937-8). 「여인명령」, 『이선희 소설 전집』 현대문학
- 이선희. 2009(1937). 「도장」, 『이선희 소설 전집』 현대문학
- 전봉관. 2014. 『경성 고민상담소: 독자 상담으로 본 근대의 성과 사랑』. 민음사
- 전희복. 1933. 「第二夫人問題檢討」, 『신여성』 제 7 권, 제 2호. 1933년 2월
- 정지영. 2004. 「조선 후기의 ‘변두리’ 여성들: 과부, 재혼녀, 첩, 독신녀」, 조옥라·정지영 역, 『젠더, 경험, 역사』,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정지영. 2006. 「1920-30년대 신여성과 ‘첩/제이부인’: 식민지근대 자유연애결혼의 결렬과 신여성의 행위성」, 『한국여성학』, 제 22권 4호
- 정혜영. 2001. 「이광수와 환영의 근대문학: <<재생>>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10집
- 주요한. 1924. 「결혼생활은 이렇게 할 것: 혼인의식부터 자유롭게」, 『신여성』 제 2 권, 제 5호. 1924년 5월
- 청운거사. 1924. 「춘소한화」, 『신여성』 제 2 권, 제 5호. 1924년 5월
- 편집인. 1924. 「미혼의 젊은 남녀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배우를 골르라」, 『신여성』 제 2 권, 제 5호. 1924년 5월